

## 그림 동전

이정란

오늘은 꼭 찾아야지. 운동화 끈을 잡아당겨 꼭 묶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신발주머니에서 쇠 집게를 꺼냈다.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았더라면 ‘네가 땅강아지도 아니고’로 시작하는 잔소리를 최소 30분간은 들어야 했을 테다. 쳇, 누군 뭐 이려고 싶어 이러나? 중고마켓에서 좀 구해 주면 될 걸 끝까지 안 해주니 이러는 거지.

내가 동전 수집을 시작한 건 3개월 전 부터다. 역사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다 우연히 모아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폭 빠지고 말았다. 채널 운영자 모아 형은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수집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형은 동전, 우표, 엽서, 만화책, 교과서 표지……. 다양한 수집 앨범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 역사까지 재미나게 풀어 주었다.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그냥 넘기는 법 없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기도 하고.

“아, 이런 걸 왜 수집하느냐고요? 으음…… 시대를 모으는 거지요. 사람만 역사가 되나요? 사람이 쓰던 물건도 다 역사가 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다. 시대를 모은다는 말, 지금껏 들은 말 중 가장 멋졌다. 나도 형처럼 시대를 모아보고 싶었다.

“수집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으음, 수집 입문자시군요. 그렇다면 동전 수집을 추천해드립니다. 동전 중에서 10 원짜리부터요. 그 다음은 50 원, 그 다음은 100 원. 이렇게 점점 높여가면서요. 아참, 행운은 길에서 마주치는 법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날부터 길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된 거다. 엄마 말로는 땅강아지가 된 거고. 10 원짜리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다 모았다. 딱 하나, 1980년도 동전만 빼고. 그건 도저히 안 구해진다. 빨리 구해서 다음 50 원 수집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학교 오는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동전은커녕 노란 병뚜껑 하나 못 봤다. 힘이 쭉 빠졌다.

“야, 10 원! 자, 10 원!”

앞의 10 원은 내 별명이고, 뒤의 10 원은 진짜 10 원이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동우가 내게 반짝반짝 빛나는 구릿빛 10 원짜리 하나를 건넸다. 색깔과 크기만 봐도 안다. 2024년도 동전이다. 찾던 동전은 아니지만 놔두면 쓸모는 있을 것 같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마지막 6교시는 사회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전자 칠판에 근현대사 역사 연

표를 띄워 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다.

“자, 다음은 1980년.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

작년 겨울에 한국사검정능력시험 1급을 땀 내가 1980년을 모를 리 없지만 손은 안 들었다. 그랬다간 또 역사 덕후니 뭐니, 잘난 척이니 뭐니 하는 말이 뒤따를 것 같아서다. 그렇지 않아도 10 원 수집한다고 소문이 짝 나서 원래 이름 한지후 대신 10 원으로 불리는데 그런 군말까지 듣고 싶지 않았다.

“1980년도 5월 광주에서는 계엄군에 맞서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

띠리리리,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쳤다. 종례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걸쳐 메고 교실 문을 뛰쳐나가려는데 동우가 날 붙잡았다. 게임하자고.

“나중에. 나 지금 급해.”

“급하긴 뭘. 또 동전 주우러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니야.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나 간다!”

뒤에서 동우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내달려 곧장 공원으로 왔다. 공원은 꽤 소득이 많은 곳이다.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1969, 1977년도 동전을 하나씩 주운 곳이니까.

공원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쇠 집게를 꺼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허리를 90도로 굽힌 뒤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살살이 살폈다. 돌멩이도 들춰보고, 풀 사이도 헤집었다. 동전은 그런 곳에 있다. 잘 안 보이는 곳, 은밀한 곳.

중앙 분수대를 지나 행운의 여신 동상까지 왔다. 날이 한여름 같았다.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목은 바짝바짝 탔다. 한계치에 도달한 듯싶었다. 턱 밑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손으로 훔친 뒤, 쇠 집게를 신발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이따 해 질 무렵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았다. 영어 학원 숙제를 한 장도 안 해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으음! 아이고, 아이고!”

두 손을 허리에 받치고 쪽 폈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났다. 어깨도, 목도, 허리도 빠근했다. 빠진 동전 하나쯤 그냥 넘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1980년도 칸만 험한 수집 앨범을 보면 마음이 바뀐다. 어떻게든 채워 넣고 싶다. 시대는 빈 곳이 없어야 하니까. 오늘도 허탕이란 생각에 짜증이 확 일었다.

“에잇!”

동상 밑 넓적한 돌멩이 하나를 걸어챘다. 그때였다. 누르고 동그란 무언가가 튀겨져 나오더니 쟁그랑,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 두 눈은 휘둥그레지고 머리카락은 쭈뼛 섰다. 딱 봐도 10 원짜리 동전이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동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우와! 우와아아아아!”

동전 뒷면을 뒤집어 보고선 폴짝폴짝 뛰었다. 애타게 찾던 1980년도 10원이었다. 동전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행운의 여신 동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동우와 산책 왔다 행운의 여신 동상 보고 운도 지지리 없게 생겼다고 했던 거 취소다, 취소. 여신이다, 진짜. 그것도 행운의 여신.

동전을 티셔츠 자락에 싹싹 문지른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얼른 집에 가서 소독하고 말린 뒤 앨범 속에 싹 넣고 싶었다. 내일부터 50원짜리 수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니 더운 것도 싹 잊혔다.

신발주머니를 쥐불놀이하듯 뱅뱅 돌리며 걸어가는데 따르르릉, 내 바로 뒤에서 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벨 소리와는 뭔가가 좀 달랐다. 소리가 묵직하고 조금 느긋한 느낌이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또 다시 따르르릉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유난히 긴 벨소리가 내 옷자락을 잡아끄는 것 같았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어?”

방금 지나쳐 온 행운의 여신상 바로 뒤편에 웬 공중전화 박스가 세워져 있었다. 저게 원래 있었나? 고개를 갸웃하는데 따르르릉, 벨 소리가 다시 한 번 울렸다. 소리는 공중전화에서 나는 듯 했다. 날이 더워 그런지 공원엔 나 말고는 안 보였다. 머리를 긁적이며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전화가 오면 받아주세요.**

공중전화 박스 안 유리문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의아했다. 전화를 거는 공중전화는 봤어도 전화가 걸려오는 공중전화는 처음이었는데 거기에 전화가 오면 받아주라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다. 누가 공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는지. 따르르릉, 또 한 번 벨이 울렸다.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으응? 전화 이제 된다, 돼! 할머니! 전화 돼요! 전화 돼!”

“.....”

“여보세요? 민구 형이야? 민구 형! 나 성욱이 형 동생 성진인데 우리 성욱이 형, 형 집에 있지? 18일 저녁에 형 집에 놀러 간다고 나갔는데 여태 안 오잖아? 그동안 전화 수없이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되네. 형, 우리 형 좀 바꿔 줄 수 있어?”

“.....”

민구 형이라니? 성진은 누구고? 성욱이 형은? 여기 공원 공중전화라고,

잘못 건 것 같다고 말하려는데, 수화기에서 귀를 찌렁 찌렁 울리는 소리가 났다.

탕탕탕! 탕탕 탕 탕!

“허어엉, 허어엉.”

남자 아이의 풀 죽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똑 , 끊겼다. 머릴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대체 뭐지? 탕탕탕, 소리는 총소리 같았는데. 그렇다면 전화기 속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 초등 저학년 정도 됐을 법한 목소리였는데. 걱정이 앞섰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혹시 또 전화를 걸어오면 경찰서에 대신 신고라도 해 줄 작정이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수화기에 몸을 바짝 붙여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하아아, 숨을 뱉어 내는 순간 동전 투입구 바로 옆이 반짝 빛났다. 그리고 ‘통화시간 2분 10원’ 이란 글자가 홀로그램처럼 나타났다 스르륵 사라졌다.

나도 모르게 손이 바지 주머니로 향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동전 두 개를 끄집어냈다. 둘 다 10 원짜리였다. 하나는 동우가 준 2024년 10 원, 또 하나는 방금 주문 1980년 10원. 동우가 준 동전을 투입구에 쑥, 넣었다. 또 르르, 짤랑. 동전이 아래 반환구로 그대로 나왔다. 다시 넣어봤다. 또르르, 짤랑. 분명 10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안 되지?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전화기 속 아이는 걱정됐다. 동전 두 개를 손에 쥔 채 만지작거리다 1980년도 동전을 세워 투입구에 대고 툭툭툭, 두드렸다. 투입구에 넣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드륵드륵, 투입구 입구 주변을 동전으로 긁다 그만…….

“어? 어어어어어어, 안 돼! 안돼애애애애애애애!”

투입기 안에 검은 손이라도 있는 걸까? 그건 정말 빨려 들어간 것이다. 안에서 누군가 잡아당긴 것처럼. 억울했다. 동전을 빼내 보려 탁탁탁, 전화기 몸체를 손바닥으로 쳤다. 수화기를 내팽개치고 수화기 걸이를 아래로 내려도 봤다. 그래도 안 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떻게 해서 찾은 10 원인데. 에잇, 괜히 전화는 받아서는. 주먹을 꼭 쥐고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퍽, 쳤다.

그때였다. 라디오 전원이 켜지듯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수화기에서 또 그 아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였다.

“형, 계엄군이 우리 마을까지 왔어. 누굴 잡으러 다니는지 총까지 막 쏘아 대나 봐. 형, 우리 형 좀 바꿔 줘. 우리 형 안전하게 있지?”

“…….”

“형, 왜 말을 안 해? 전화 또 끊어진 거야? 아, 안 되는데. 형이랑 통화해야 하는데…….”

아이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리지? 계엄군에 총? 흠  
흠, 목을 가다듬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 줘야 할 것 같았다.

“형은 과, 괜찮을 거야. 그런데 계엄군이라고?”

“응, 지금 광주 시내에 짹 깔렸어. 이제 학생이고 노인이고 안 가린대. 긴  
곤봉으로 막 내리치고 총에다 칼까지 꽃고 찌른다잖아. 형, 우리 형 잘 있  
지? 우리 형 바꿔 줘.”

“아, 너희 형…….”

정신이 멍해졌다. 계엄군에 광주 시민에, 곤봉에 총. 그리고 내가 넣은  
1980년도 동전. 이런 걸 도깨비에 흘린 거라고 하는 걸까? 나는 1980년도  
5월을 사는 광주 아이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였다. 온 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한겨울 마냥 어깨가 시렸다.

“우리 형이 왜? 우리 형 지금 같이 없어?”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언젠가 본 적 있던 기  
사가 떠올랐다. 계엄군을 피해 다락방으로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는 인터넷  
기사였다.

“저, 저기…… 지, 지금 다락방에 올라갔어. 몸을 숨겨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형은 잘 있는 거지? 그렇지? 할머니! 할머니!”

“…….”

“형 잘 있대요. 인구 형네 다락방에 숨어 있대요. 할머니, 성욱이 형 찾으  
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난 온 몸을 끄덕였다. 1980년을 사는 광주의 아이라면 절대 밖으로 못 나  
가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5.18의 모든 지식을 다 끄집어냈  
다.

“내 말 잘 들어. 27일 오전까진 절대 나가면 안 돼. 27일 오전까지야. 총  
소리가 나고, 헬리콥터 소리가 나도 절대 나가면 안 돼. 할머니도. 너희 형  
은 돌아올 거야. 그리고…… 1980년 광주는 역사에…….”

띠띠띠띠, 뚝. 전화가 끊겼다. 통화 시간 2분이라더니 그새 다 된 것 같았  
다. 아직 말을 다 못했는데.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는 말을 해 주고 싶  
었는데. 다음 시대 사람들이 내내 미안해 할 거라는 말도 해주고 싶었는데.  
2024년도 동전은 반환구로 나와 버릴 게 뻔 했고, 하나 주운 1980년도 동전  
은 이미 써 버린 후였다. 울렁이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 앞을 서성거리다 터  
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형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기만을 바라면서.

영어 학원 가방을 챙기려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동전 수집 앨범을 꺼내  
펼쳤다. 10 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왔던 1966년도 것부터 2024년도 것까지  
열을 맞춰 주르륵 꽃혀 있었다. 1980년도 칸은 오늘따라 더 험했다. 영어

공책 한 귀퉁이를 가위로 동그랗게 오려냈다. 노란색 사인펜으로 색을 칠한 뒤, 까만 볼펜으로 숫자 10을 썼다. 그리고 뒷면에 수화기에서 들었던 세 명의 이름을 차례대로 쓰고, 아랫부분에 1980이라고 쓴 뒤, 앨범에 끼웠다. 다른 년도 동전 칸은 볼록한데 1980년도만 폭 꺼져 보였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바지주머니에 넣어둔 2024년 동전을 꺼내 그림 동전을 그 위에 붙였다. 양면테이프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손바닥 사이에 끼고 꺾 누른 뒤 1980년도 칸에 끼웠다. 그리고 손끝으로 살살 어루만졌다. 울먹이던 성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시대를 모으는 것, 때로는 이렇게 어루만져야 하는 일인 걸 이제야 알았다.